

12/16/99 (목)
한국일보

나치 강제노역보상 승소 미법률회사 가세

징용한인 배상소송 새국민

정신대문제협도 유력 법조인 영입 활기

나치독일 치하 유대인 징용피해자들이 독일정부·회사로부터 52억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본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한국인 징용피해자의 변호인단에 미국의 대표적 법률회사들이 속속 가세, 한국인 징용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정에 처음으로 한국인 징용소송을 제기, 이미 「다이헤요 시멘트」와 법정투쟁에 돌입한 신혜원·한태호 변호사는 『유대인 징용소송을 이끌어 왔던 미국법률회사 「리프, 카브레이저, 헤이먼 & 번스타인」이 우리와 함께 싸우기로 했다. 「리프, 카브레이저」에 앞서 스위스뱅크 케이스로 유명한 미국법률회사 「플레이시먼, 피셔 & 보에스트」도 이미 한 팀을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리프, 카브레이저」는 도이체방크·폭스바겐·지멘스 등을 상대로 이번 유대인 징용소송의 승리를 주도했으며 LA시·일리노이주 등의 변호인으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이겨 2,060억달러의 보상을 이끌어낸 회사다. LA에 있는 「플레이시먼, 피셔」는 미국변호사협회 종교자유소위원장을 역임한 배리 피셔 세계민권변호사협회 부회장이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리프, 카브레이저」와 손잡고 스위스뱅크 케이스를 승리로 이끌어 지난해 12억5,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낸 대표적 민권법률회사다.

이에 앞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함께 했던 미국법률회사 「하겐스 버먼」도 워싱턴주에서 한국인 징용소송을 이

끌고 있는 운영일 변호사와 손을 잡았다.

한편 워싱턴에서 정신대피해자 김운심 할머니의 정신대 소송을 준비중인 워싱턴 정신대문제협의회(위원장 이동우)도 지난 10일 법률위원회(공동위원장 최승홍·크리스틴 그레고리)를 발족시키고 게이 맥두걸 국제민권변호인단 위원장과 일라이 로젠바움 연방법무부 특별수사국장을 법률위 명예고문으로 영입했다. 맥두걸은 UN정신대특별보고서로 유명한 인권변호사이며 로젠바움은 지난 96년 일본 전범의 미국입국비자 발급을 정지시켰던 장본인이다.

징용과 정신대 문제에 각각 집중하며 일본 전쟁범죄의 처벌과 배상에 주력하고 있는 서부와 동부의 한인들은 공동전선도 형성하고 있다.

이동우 위원장은 『정대협은 지난 10일 부로 법률위 서부지부(공동위원장 배리 피셔·신혜원)도 발족시켰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동서부 한인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신대와 인체생체실험의 한국인 피해자들까지 다수 확보하고 소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대 피해자는 아직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특히 인체생체실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2차대전 종전 이래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 국제정치 무대로까지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쟁범죄는 한·미·중·러·영·호주·필리핀 등이 모두 피해당사자이나 한국인은 징용 166~600만명, 정신대 20~30만명으로 최대 피해자임에도 한국정부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 문제가 종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에 이렇다 할 반대입장 조차 펴지 못하고 있다.

〈한우성 기자〉